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그때와 지금은 암울함의 근원이나 고뇌의 내용도 다른 것 같다. 정말 고민이다. 그 시절의 선생님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그리도 잘 헤아리셨을까? 지금 우리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것일까? 세상을 보는 통찰력이 모자라는 탓일까? 교수라고 하면서 아이들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진다. 학기가 끝나면 제일 먼저 그 시절, 우리의 큰 선생님들을 찾아 봐야겠다. 그리고 새내기를 기르면서 느끼는 74학번 교수의 고민을 말씀 드려야겠다. 좋은 선생의 길을 배워야겠다.

## — 처음 생각대로 살고 싶다



설 혼\_ 고려대 사학과 74 학번, 제16대 국회의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회장(화협) 공동의장, 중국북경대학교 아태연구원 교수 겸 객좌연구원(현)

1972년 10월17일, 유신쿠테타는 충격이었다. 나는 대학입시에 낙방하여 재수하던 중이었는데 하숙집 주인이 계엄령이 선포되었다고 전해주었다. “아니 평화시에 무슨 계엄령, 잘못 들으셨겠지요?” 반문했으나 시내에 탱크가 들어왔다는 말에 정말 ‘계엄령이 났나보다’ 했는데, 이른바 ‘10월 유신’ 이었다.

얼마나 분노했는지! 드디어 박정화가 한국의 민주주의 간판을 뜯어내고 말았구나! 이런 불의한 짓이 어디 있나? 헌법을 마음대로 유린하다니. 민주주의는 지켜야 한다. 싸워야 한다. 이대로 주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끝장난다. 싸우자, 싸워서 민주주의를 지키자.

그날 얼마나 분했는지 친구 하숙집에 가서 술을 엉망으로 마시고 고래고래 소리치며 “박정희 그냥 두면 안 된다. 민주주의를 말살한 자를 그냥 둘 수 없다. 모두 일어나 싸우자!” 비틀거리며 미아리고개를 올라 가던 기억이 새롭다.

고등학교 때 흥사단아카데미 활동을 했다.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눈을 트었다고나 할까. 아카데미 활동을 통해 정의로와야 하고, 나라가 어려울 때는 몸을 던져야 하며, 불의에 항거할 수 있는 삶이 값진 것이라고 배웠던 것이 참으로 다행이었다. 아카데미 활동은 거의

내 인생의 주춧돌 역할을 하였다.

대학에 입학해서는 입학식도 참석하지 않고 이념서클을 먼저 찾아나섰다. ‘청년문제연구회’, 선배들이 활동하던 이념서클은 73년도에 모두 해산당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단체였다. 유신 독재에 어떻게 싸울 것인가가 활동의 전부였다.

74년 4월에 민청학련 사건이 발표되자 학교 이발소에서 삭발을 했다. 긴머리카락이 뭉텅이로 떨어질 때 국민의 눈물이라고 생각했다. 깎은 머리로 교정을 휘젓고 다니니 금방 선배들의 눈에 띄었다. ‘민우지’, ‘야생화’ 사건 등으로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했던 고대 학생운동권에서 그나마 남아 있던 조성우, 한호철, 심재훈 선배들이 유신반대 지하신문을 만들자고 제의해 왔다.

입학하고 두어 달 지났을까? 이틀만 시간을 달라고 했다. 바로 그때부터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고민에 휩싸였다. 왜냐하면 지하신문 발행은 구속이었기 때문이었다. 데모를 주동하면 구류 정도였지만 지하신문 발행은 구속이었다. 민우지, 야생화사건 등이 모두 그랬다.

박정희 정권의 기세가 등등할 때였다. 구속되면 학교는 물론이고 거의 인생 끝나는 정도로 생각될 때였다. 먼저 어머니, 내가 감옥 가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아버지야 당신이 젊어서 하셨던 일이니 어쩌면 담담하시겠지만 어머니의 슬픔은 어떻게 하나?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큰형, 육사를 졸업하고 육군대위였다. 장군이 되는 것이 희망인데….

고뇌했다. 또 고뇌했다. 할 것인가 그만 둘 것인가? 잠도 못 잤다. 이를 후 결론을 내렸다. 국가가 망할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가족애에 연연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할 수는 없다. 가족도 국가의 구성원이다. 해야 한다. 결론을 내리니 그렇게 시원할 수 없었다. 불효는 어쩔 수 없었다.

74년 어느 봄날의 고뇌는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볼 수 있다. 수많은 민주화운동의 동지들 역시 똑같은 고뇌를 겪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하신문 발행은 차질이 생겨 진행되지 않았다. 선배들이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 발간사를 쓰라고 해서 발간사까지 썼지만 누군가가 이탈자가 생겨 발행도 못하고 중지되었다. 그러나 나는 결심을 마친 후라 생각으로는 감옥을 갔다온 기분이었다.

그 일이 있고나서 74년 가을에는 1학년인 주제에 최규엽, 박원희, 홍의락 등과 함께 데모를 주동하였다. 박정희가 자신만만할 때라 구속이나 제적도 없이 유치장 구류로 끝났다. 75년 봄이 되었다. 2학년이 되자 학내 시위를 주도하게 되었고, 최규엽 등 12명이 논의하여 전국대학중 제일 먼저 반유신기치를 올리자고 하여 3월 31일 시위에 들어갔다. 시위는 격렬해지고 결국 박정희는 전무후무한, 고려대학 내에만 통용되는 긴급조치7호를 발동하게 되고 연이어 전국 대학에서 시위가 봇물처럼 터져나오자 무시무시한 긴급조치9호를 발동하게 된다. 이로써 75년부터 79년 박정희 피살 때까지 암울한 긴조9호시대가 펼쳐진다.

박정희는 전국 각 대학의 학생운동 관련자들을 제적시키고 교수들을 학교에서 추방한다. 긴조9호가 하도 무시무시한지라 감히 저항을 못하고 있었으나 이내 과감히 몸을 던진 사람들이 나타났다. 고 이범영, 박석운, 백계문 등 서울법대 4학년들이었다. 충격이었다. 서울법대 졸업을 코앞에 두고 그야말로 출세길이 보장되어 있는 그들이 모든 것을 접고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 진정한 자유를 위해 감옥으로 걸어간 것이다. 어쩌면 긴조9호는 이들에게 이미 박살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그 전에 5·22 사건, 카톨릭학생회 사건 등이 있었지만 서울법대 4학년생들의 시위는 적어도 나에게서는 충격이었고 큰 용기를 주었다. 그렇다. 나도 감옥으로 가겠다고 결심했다. 결국 박석운, 이범영, 백계문이 나를 감옥으로 끌고 간 사람들이다.

참으로 치열하게 살다간 이범영, 그가 보고 싶다. 남들 다 하는 국회의원도 마다하고 지금도 재야에서 빛을 뿌리고 있는 박석운, 백계문은 또 언제 볼 수 있을까?

그로부터 감옥생활을 정확히 5년 했지만 나에게서는 그 기간이 가장 보람있고 어쩌면 행복한 시간이었다. 감옥에서 나올 때마다 후배들에게 감옥가기를 권했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불의에 대해서는 싸워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고문당하고 인생 끝나는 한이 있어도 싸워야 한다. 그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감옥생활은 자신을 정화시키고 사색하게 하며 많은 독서를 할 수 있게 되고 심지어 건강도 좋아지게 된다(이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5년 중 한번도 우리가 패배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 믿음으로 버텼다. 79년 가을 2차 감옥행 때도 박정희가 오래 못 간다는 확신

하에 결행했고 결국 며칠 만에 10.26이 터졌다. 전두환이 집권하고 노태우까지 이어졌지만 그들은 결국 망할 것이라고 확신했고 그렇게 되었다.

정의는 느리지만 결국 실현된다는 평범한 진리.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다. 각자의 삶이 바쁘다. 그러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 30년 전 감옥갈 때의 그 고뇌와 그 결단이 내 삶의 지향이 되어 살게 되기를 원한다.

## 자천명(知天命)에 생각하는 유책무(有責務)



양춘승\_ 서울대 경제학과 74학번. 우상해운, 지환테크 대표이사(현), 관악민주포럼 회장(현), 한국환경벤처협회 해외사업이사(현)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했던가? 어언 30년이 흘렀다. 이제는 기억하는 사람도 서서히 사라져간다. 과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가!

나는 시골의 한 귀퉁이에서 태어나 거기서 중학교를 마치고 운 좋게 광주로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다. 항상 진학이 아니면 농사를 지어야 하는 양자택일의 기로에서 나는 다른 친구와 달리 진학을 할 수 있었다. 거기에는 제발 가난한 시골에 남지 말라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나를 분발시키지 않았나 생각한다.

어렵게 광주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나는 육사에 진학할 요량이었다. 항상 삼국을 통일한 김유신을 존경했던 나는 육사에 가서 무력으로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천진한 그러나 대단히 위험한 생각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고등학교 2학년때인 1972년 유신이 선포되고 안면신경마비로 눈이 짝짝이었던 나는 육사에 대한 꿈을 접었다. 유신은 그때까지 내가 알던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깨버린 것이었다. 비록 피상적이거나 민주주의란 백성이 주인이라는 나의 상식은 더이상 통하지 않았다. 대학입시에 바쁘던 나는 유신헌법에 대한 공부는 하지 않기로